

신현실성으로써의 대중매체의 세계

표창: 올해 칸토날은행 미술상은 장정연씨에게로 돌아갔다.

비젤란드지역의 칸토날 은행의 미술상은 화가 장정연씨에게 수여됨.

바젤란드 미술관에서 „레기오날레 8“의 미술상으로 상금 10.000 프랑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미술상이 화가 장정연(41)씨에게는 처음으로 받는 상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 파리 보자의 국립미술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를 받은 후에 1995년 „파리의 Talent“ 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더불어 세계의 상을 받았다. 또한 파리의 젊은국제 예술가들의 모임인 시테에서 화가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전세계 국제 젊은 작가 들과 함께 미술가으로써의 국제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장정연씨는 8년전부터 여기(스위스 바젤)에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바젤란드의 예술관에서 열린 „셀렛션“ 에 참가하여 미술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같은 계기로 작가는 바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와 주리히에서 작품활동을하였다.

화가의 작품들은 잡지와 작가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또 종래의 사진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작품의 아이디어와 동기를 작품소재로 삼았다. 바젤란드의 칸토날은행이 올해의 화가상으로 장정연씨를 선정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가는 여성을 직관하는 냉철한 관찰력과 이로인해서 자기주장과 자기의식이 강한 여성상 즉 당돌함과 활기찬 여성들을 주제로 작품을 잘 표현했다. 이것은 곧 작가 자신이 이러한 여성상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더 나아가서 1980년대와 90년대의 광고와 대중매체의 미학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씨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삶의 주인적 의식을 가진 여성들을 주제로 작품을그렸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여성상은 50년도의 대중적 상을 다시 엿볼수있게한다. 여성들을 직관하면서 그때 그때의 순간과 개인적 순간들을 영화를 보는것처럼 관찰할수가있다. 왜냐하면 작가의 그림들이 영화와 같은 양식에 비유되기때문이다. 여류화가는 또한 당돌함과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의 순간을 자아내고, 불확신이 커가는 순간들 이러한 다른편의 여성상을 우리에게 비추어준다.

화가는 실재적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여성을 주제로한 그림옆에 최근 작가의 작품들은 그 전의 작품들에서와는 달리 추상적인 형태로 외부윤곽을 정하고 내면으로 장식적인 것을 소재로 창문을 주제로한 실내장식을 꾸민것을 볼수가있다. 바젤란드 예술관에서의 전시품은 무엇보다도 벽을 도배로 장식하고 안에 여성의 모습을 그려 서로 조화를 시켰고 게이샤 모습의 여인을 거울에 그림을 그린것이나, 여자가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불을 붙이는 모습 혹은 손가방을 든 여자의 모습을 알루미늄재료에 그렸다. 중요한것은 여러다양한 재료표면들을 사용한 점이다. 예를들면 거울에 그림을 그린것이나 손가방에 그림을 그린것 또 부엌용품들에 그림을 그린것들을 들수가있다. 일상용품들이 화가의 그림에 사용되었고 또 이러한 작품들은 연극무대의 그림이나 무대 설치를 연상시키게한다. 장씨에게 주어지는 찬사는 사진기술을 작가의 작품에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것이다: „실재적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것이다. 실재사물이나 대상들을 사진으로 찍었을때 사진 그 자체에서 실재사물과 다른 많은 허구성이 비추어지는것을 볼수가있다; 작가는 이러한 실재성과 허구의 관계를 가진 사진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며 작가의 작품에 사진과 같은 허구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가의 작품들이 사진사실주의나 초사실주의에 경쟁을하는것은 아니다.“